

기독교 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재고: 정체성, 타자, 구조-

Christian Worldview: What to Consider? Reconsideration of Identity, Other and Structure

낮선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나 설레임과 두려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준다. 그 중에서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특별한 궁금증을 제기한다. 목회자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궁금한 지점이고, 비목회자 원우들에게는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데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향하는 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학업의 커리큘럼이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개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출발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고민을 출발하는 일련의 핵심어들로 정체성, 타자,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이드가 자신의 저작 “모세와 유일신교”에서 분석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통해 널리 사용되게 된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구별된 인식인 동

시에, 타자, 즉 남들에 대한 규정이기도 한다. 때문에 정체성과 타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내세우는 정체성 혹은 명시적 정체성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정체성이다. 기독교들에게 정체성은 다른 이들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 핵심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른바 복음주의 기독교권 내에서 편리하게 규정하는 지표들이 있다. 동성애, 낙태에 대한 태도나 사형제도, 진화론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와 낙태 반대 등에 대한 견해를 복음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느냐를 판단하는 리트머스지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해 미국 대선 당시 다수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을 보았다. 미 대선을 지켜보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복음주의가 내세우는 가치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운 트럼프의 주장을 공동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가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

드러나는 정체성 혹은 암묵적인 정체성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종교적, 국가적 신념이라는 어휘가 강조되지만, 그 밑에 숨어 있어 생성되는 궁극적인 결과물은 동일하다. 바로, 극단적 형태의 타자화이다. 나와 다른 피부색, 종교적 가치, 문화와 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기 보다는 타자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는 정신적 차별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민 제한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같은 실질적인 물리적 분리까지 동반할 수 있다. 만약 추구하는 정체성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향한 것이라면, 그 정체성이 강화될 수록 차별과 타자화가 강조되는 사회가 된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그것이 오용될 때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대되는 정체성

기독교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구호와는 별개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기독교에 대해 '기대하는 정체성'이 있다. VIEW에서는 전 재학생들이 모여 매 학기 말 우수 논문이나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Paper Day의 전통이 있다. 지난해 졸업 논문 발표 때에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이 소개된 적이 있다. 그 발표에서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바는 작가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마 작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적어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체성, 가치란 것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전유하는 가치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차별 없는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 등이 그 어떤 종교적 어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를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반국가적이고, 무신론을 신봉하는 반윤리적인 집단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박해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버림 받은 약자들인 노예, 여성,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영접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냈다. 문화적 인종주의를 표방한 헬레니즘과 혈통적 인종주의자들인 히브리인의 장벽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지향하였다. 이렇듯 타자를 만듦으로써 구현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타자를 포용함으로써, 혹은 스스로 타자가 됨으로써 구현되는 정체성이 기독교 정체성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방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구호로 능동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정체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와 남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기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내세우는 정체성은 잘못하면 타자화를 통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된다. 정체성을 지키자는 대의 명분이 세상과 정신적, 물리적 장벽을 높이 쌓을 수 있다. 거친 비유이기는 하지만, 11~13세기 십자군 운동의 광기에 휩쓸렸던 절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실상은 이슬람과 접경 지대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 한 번도 이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는 내륙 지역의 사람들이 상상 속의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참여한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신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타자에 대한 봉사를 위한 내적 집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더불어 공동체의 정체성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공동체가 지닌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 『신도의 공동생활』, 본회퍼

다시 풀어 말하자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밖의 타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타자 속으로, 세상 속으로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엄연히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역사 속의 제도라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즉, 교회 내부에서의 자정의 노력이나, 신학적 논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제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당대의 사회에 활발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때는 예외 없이 교회가 시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했을 때였다. 초대 교회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구조화 해 놓은 인종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복

음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경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장기 지속되는 시대의 구조'에 대한 통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역사가들은 역사가 인간의 활동과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문서실에 들어앉아 조상들이 남긴 사료를 조심스레 읽어가며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런데 근대 서구 역사가들은 인간의 행위는 사실상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지리적, 물리적, 정신적 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구조를 '장기 지속'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문헌 연구 중심이던 역사 연구가 인류학, 경제학, 지리학, 고고학 등과 연계하여 그 지평을 넓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물리적 구조가 거의 변함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조가 우리의 사고 형성을 틀 지운다는 것이다. 20세기 서구 역사가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인식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몇 세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바이기도 한다.

18세기에 지어진 춘향가의 산세타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축하여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허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를 보면 ...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벌악지성이다.”

지리, 사회, 경제, 정치 구조 등 쉽게 변하지 않는 구

조가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첫째로, 구조를 보지 못하거나 구조가 변할 수 없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구조를 통해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을 타개 하고자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처리즘, 레이저노믹스로 대두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경제 물결이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를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구조는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이 현명했을까?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자기 계발서에 대한 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긍정의 힘'이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초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양극화, 비윤리성, 교회 세습, 절대 다수 목회자의 생계와 고용의 불안정 문제 등은 교회라는 개별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에 그치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일부이다. 백 보 양보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라면 기도, 회개, 자정 운동을 하거나,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적 지향을 점검하고 확고히 하면 될 것이다. 만약 시대의 산물인 오늘의 교회 형태의 구조를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거나, 혹은 구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수라고 본다면 각개 약진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정당화 하는 이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여 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역사의 변곡점은 이 구조가 전환될 때 생겨났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도전하여 그 구조를 깨트렸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작동 구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

다. 표면의 뒤에서 작동하는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의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출발점은 이것이다.

불변의 진리로서의 기독교 복음과 진리의 담지체를 지향하는 제도 교회를 동일시 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도전하여 깨트린 것이기도 한다. 당대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언설을 내세웠지만, 루터는 이에 대응하여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는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던 구조의 뼈대를 건드린 순간,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제도 교회의 틀에서 질식하던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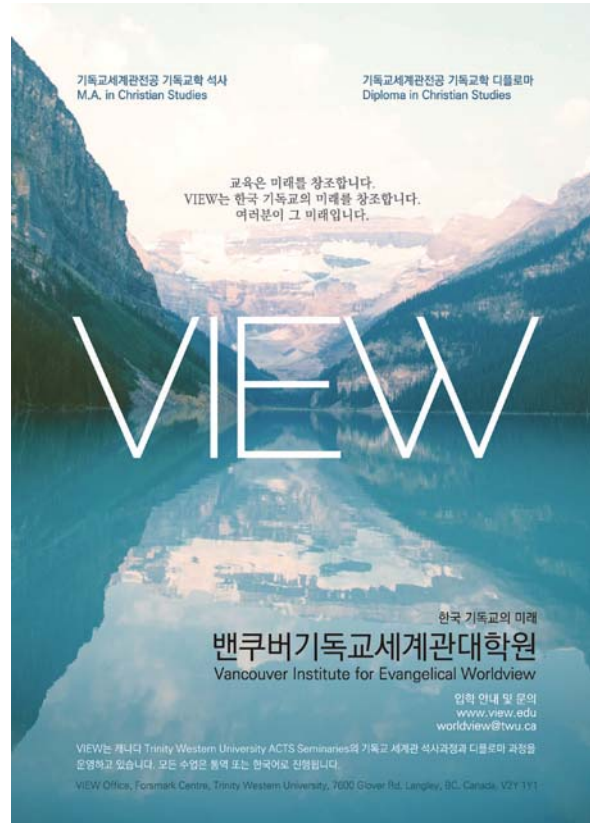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상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현상을 생성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공부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구조를 읽어나가는 접근법은 자신의 신학적 프레임에 갇혀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학제간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신학이 '종합 학문'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아쉽게도 근, 현대를 넘어 오며 기독교 교의와 성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좁아졌다. 이것이 현대 학문 체계 속에 신학이라는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천착하는 이유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학문의 통합, 학제적 접근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추구한다.

신입원우들의 VIEW에서의 학업과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적어도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이해의 차이는 있

겠으나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한국이라는 곳을 벗어나 지리적으로 캐나다라는 사회에 들어와 하루아침에 타자가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에서, 이곳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거나 한국 상점에서 일을 하는 경험에서, 이민교회의 목회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은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기존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라는 익숙한 장기 지속의 구조에서 벗어났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15년 전 영국 유학을 갔을 때 한 동안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도 되나?” 라는 죄의식 아닌 죄의식이 든 적이 있다. 캐나다에 온 많은 목회자들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단란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기쁘고도 낯선 경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이렇듯 정신 없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관습의 틀을 벗어난 곳이 이곳이다. VIEW 공동체는 어떨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 놀지만 목회자와 비목회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부하고 사귄다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교수들이 4박 5일 마이크를 잡고 관광 가이드를 하고, 집을 개방해서 살롱의 호스트가 되어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자로 살며 타자에 대한 공감력을 높여 가고, 한 걸음 떨어져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지 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 신입 원우 모두 VIEW에서의 학업과 삶을 통해 정체성과 구조의 틀을 다시금 점검하고 조망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본 칼럼은 2017년 1월 14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신입생 환영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7. 03. 10(금) 저녁 7:30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2층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 100m 지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와 다른 건물이니
위치를 확인하세요.)
- 문의 : (02) 754-8004

글 | 최중원

현재 VIEW에서 세계관과 지성사 교수로 교회사, 고대 지성사, 중세 지성사, 근대 지성사와 기독교사관과 역사오식 등을 강의하고 있다.